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비교를 통한 교정정책연구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을 중심으로-

이 덕 남 *

A Study on the Correctional Policy through Comparison of Juvenile Delinquents and Normal Adolescents: Focusing on Self-esteem and Sociality

Duk-Nam Lee *

요 약

본 연구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과 일반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대한 영역별 차이를 비교분석해 보고,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교정 정책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년원생(84명)과 일반 중고등학교의 남학생(230명)을 설문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 차이분석에서는 총체적 자아존중감과 학교 자아존중감에서 비행청소년이 높게 나타났으나, 가정적 자아존중감 영역에서만 일반청소년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사회성의 하위 영역의 지도성에서는 비행청소년이 높은 결과를 보였고, 자주성과 협동성에서는 일반청소년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각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의 차이는 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맞춤형 설계를 통한 비행예방 교정정책의 방안이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바이다.

▶ Keywords : 비행청소년, 일반청소년, 자아존중감, 사회성, 교정정책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ison analysis of the differences by scope between juvenile delinquents, under sentence of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and normal middle-high school boys' self-esteem and sociality; it aims to search for the correctional policy to prevent juvenile delinquency. I conducted a survey, as a sampling target, of students (84) at Daedeok Juvenile Reformatory, located in Daejeon-si, Korea, and the normal middle-high school boys (230). The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in the analysis of self-esteem difference, juvenile

•제1저자 : 이덕남

•투고일 : 2013. 11. 05. 심사일 : 2013. 11. 30. 게재확정일 : 2013. 12. 12.

* 조선이공대학교 사회복지학과(Dept. of Social Welfare,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delinquents were found high in the global self-esteem and school-academic self-esteem, but the normal adolescents were found high only in the scope of family-parents self-esteem. In leadership, a subordinate scope of sociality, juvenile delinquents showed the high result, and in independence and cooperativity, normal adolescents were found high. In conclusion, as the distinction between self-esteem and sociality is different by scope,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characteristic and environment, it suggests that the correctional policy through the customized plan is effective at preventing delinquency.

▶ Keywords : North juvenile delinquents, normal adolescents, self-esteem, sociality, correctional policy.

I. 서 론

청소년기는 다양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과도기로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로 문제행동이나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여, 자칫 판단력의 결여로 인해 자살이나 비행, 범죄행위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범죄 행위 및 일탈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는데,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그를 인정하지 않은 사회에 반격을 가하고 잃었던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기 위해 비행에 가담한다는 것이다 [1]. 자아존중감과 비행과의 관계를 보면,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일반청소년보다 낮은 것을 발견했고[2],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구성원과의 인습적인 유대가 강해짐으로써 비행이 억제된다[3]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아가 건전하게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안정성이 결여되어, 현실 세계의 고통을 회피하려고 왜곡하는 행동을 표출하게 되면서 비행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자아존중감이 인간의 행동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신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되는 자아존중감과 타인과의 관계에 바탕이 되는 사회성은 상호관계를 작용하여[4],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며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가진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은 상호작용이 필요한 협동심 및 사회적 행동에서도 결함이 나타나, 학교생활에 부적응 현상을 보이며, 비행이나 약물복용 및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은 개인마다 영역별로 나타나는 정도가 달라, 한 사람이 어떤 영역에서는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나, 다른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이 제시되었다[5][6][7].

사회성 또한 하나의 성향으로 보기도 하지만, 사회성도 자아존중감과 같이 개인마다 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몇 가지 하위 요소로 구분하여 측정되기도 한다.

2011년도 학생범죄자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16세(26.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15세, 17세, 18세, 14세, 10~13세 등으로 나타나, 16~18세 연령대의 범죄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8]. 특히 재산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다음으로 폭력범죄, 교통사범이 많았으며, 4범 이상 소년범의 비율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산범죄 중 절도범죄의 비율이 8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생계형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과 4범 이상 소년범의 증가에 따른 교정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8].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일탈과 비행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연령대는 낮아지고 있음에 따라, 사전에 비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을 탐색·모색하는 실증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소년보호처분[9]을 받은 비행청소년과 일반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대한 영역별 차이를 비교분석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교정복지의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의 어떠한 구성요소에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은 사회성의 어떠한 구성요소에서 차이가 있는가?

II. 문헌고찰

1.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치와 판단으로 개인의 사회적 행동 역할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타인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기에 호의적으로 대하고, 문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10]. 따라서 자신의 판단과 능력을 믿으며, 창조적으로 활동하고 지도자적 역할을 한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우울해하며 불안이 강하고 대인관계가 원만치 않아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실패를 두려워한다. 따라서 긍정적 자아에 대한 관점을 확립하지 못하여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서도 자신의 가치와 성공감에 대한 확신을 성립시키지 못한다. 청소년기에 낮은 자아존중감이 우울증으로 변하는 시기에, 부모의 기대와 또래의 요구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에게 부모의 기대가 높을 때, 무력감이 커지게 되고 이러한 무력감은 곧 우울증으로 변하게 된다. 반면, 부모와 또래 집단의 따뜻한 지지나 격려가 있으면 낮은 자아존중감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다[10].

2. 사회성(sociability)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과 타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완성해가며 끊임없이 대인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사람은 여러 형태의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과정에서 형성되는 인간성을 사회성이라고 한다.

청소년의 사회성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성이 높은 청소년은 자기의 학습과제에 대해 집중력이 높고, 학급이나 집단에서 활동력이 왕성하며, 친구들과 충동이 적고 사회적으로 당당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반면, 사회성에 결함을 보이는 청소년의 특성은 사회적 기능이 부족하여 가능한 해결책이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홀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또한 약물중독, 학업실패, 비행행동 등,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높다[11]. 이러한 사회성의 발달은 어릴 때, 부모의 양육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비합리적인 양육 태

도는 정서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만 아니라, 학업성취의 어려움으로써 이어져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범죄행동으로까지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상의 문헌 고찰을 통해, 자아존중감은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성 또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 [12]는 연구결과와 같이, 올바른 사회성 발달을 위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은 청소년 문제 행동 및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비행청소년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소년 비행은 세 가지 행위로 구분되어 파악되고 있다[13]. 첫 번째는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 중 성인도 기소될 수 있는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와 절도, 주거침입 등의 재산범죄의 중범죄 행위, 두 번째는 사소한 절도, 폭행 등의 경범죄행위, 그리고 세 번째는 소년이기 때문에 일탈행동이 되는 음주, 흡연, 음란물접촉, 싸움, 가출 등의 지위비행이다.

반면, 법률적으로는 소년법의 비행예방에 대한 일반규정에서 범죄소년[14], 촉법소년[15], 우범소년[16]을 비행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선행연구 고찰

최근 사회적으로 소년범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범행의 질도 심각해짐에 따라,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수없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미흡하다. 이는 까다로운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복잡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다.

먼저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이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두 변수 사이의 매개체로서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청소년들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결여된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 및 수용정도가 낮고, 열등하며,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강하여 비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17][18]의 연구들과 비행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과 달리, 부모나 타인과의 관계형성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힌 연구[19][20]가 있다.

그리고 계속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들은 부정적 감정이 축적되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된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21]와 그러한 부정적 경험에 의해 낮아진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기 위하여 비행에 가담하게 된다[1]는 이론을 밝힌 연구가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22]와 낮은 자아존중감이 비행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연구[24]는 연구가 있다.

셋째,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없지만, 두 변수 사이의 매개체로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24][26]는 새로운 범주에 속하는 연구가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보면, 자아존중감과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더욱이 비행청소년의 사회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의 비교를 통해,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의 하위변인에 있어서 영역별로 나타나는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을 비교하고자,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년원생(84명)과 연령이 비슷한 서대전에 위치한 일반 중고등학교(230명) 남학생을 표집대상으로, 2011년 9월에서 12월까지 설문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11-12세경 낮아지다가 자아상의 한층 강화된 인식이 고등학교시기에 정상적으로 회복되므로[1], 일반청소년의 대상은 16세, 17세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중3과 고1학년을 중심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절차는 일반인 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로, 법무부소속 소년원담당자의 협조를 구해, 우편을 통해 전달 수거했으며, 일반 중고등학교에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약속된 날에 직접 방문하여 배포 수거하였다.

2. 측정도구

2.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련 문항은 총 32개 항목이며, 4개의 요인에 대해 측정하였다. 총체적 자아존중감 6개, 사회적 자아존중감 9개, 가정적 자아존중감 9개, 학교 자아존중감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

고자 [27]-[29]등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30]이 개발한 SEI(Self-Esteem Inventory)를 활용하였으며,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74이다.

여기에서 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y (CSEI): [27][31]는 자아존중감 측정척도를 네 영역의 하위척도[32]로 구성하였으며, 각 하위척도 점수의 총합으로 자아존중감이 측정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하위척도 구성은 총체적 자아존중감(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측정은 개인의 특성과 주변 환경에 따라 영역별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개인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는 강조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도구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사람이 어떤 영역에서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으나, 다른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6][33][34]는 이론적 가능성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을 규명하여 개별 척도로서 종합지수를 산출하는 형식을 취했다.

표 1. 자아존중감 하위 영역별 문항수와 번호
Table 1. The Total Number of Questions and Question Number by Subordinate Scope of Self-esteem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의 α
총체적 자아존중감	1, 5, 9, 13, 17, 21	6	.701
사회적 자아존중감	2, 6, 10, 14, 18, 22, 25, 28, 31	9	.671
가정적 자아존중감	3, 7, 11, 15, 19, 23, 26, 29, 32	9	.831
학교 자아존중감	4, 8, 12, 16, 20, 24, 27, 30	8	.613

2.2 사회성

본 연구에서는 코리안 테스트센터에서 [35]이 개발한 '최신 인성, 정서진단검사' 중에서 사회성 관련 문항을 뽑아 이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15문항으로써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성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74로 나타났다. 사회성은 하나의 성향으로 보기도 하지만, 몇가지의 하위 요소로 구분되기도 한다. 여러 연구자들(이승재, 1999; 방효업, 2000; 권순일, 2002; 최순임, 2005)이 사

회성 하위 요소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데, 사회성 하위 요소는 수용성, 사교성, 협동성, 지도성, 안정성, 자율성, 근면성, 신뢰성, 준법성, 자주성, 봉사성 등으로 종합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성 하위 요소 중,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가 높은 지도성, 사교성, 자주성, 신뢰성 네 가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자신을 평가할 때 강조하는 영역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성 측정 또한 특정도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36)는 점으로 보아, 사회성의 하위변인을 규명하여 개별 척도로서 종합지수를 산출하는 형식을 취했다.

표 2. 사회성 하위 영역별 문항수와 번호
Table 2. The Total Number of Questions and Question Number by Subordinate Scope of Sociality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의 α
지도성	1, 2, 8, 9, 12, 15	6	.785
사교성	13, 14	2	.701
자주성	5, 6	2	.839
신뢰성	7, 11	2	.691

1.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ver 1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설문지의 신뢰도 분석(Cronbach's α)을 하였고,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비행청소년의 비행 요인, 비행청소년의 소년원 입원 전의 비행전력 요인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분석에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는 기술통계분석을,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의 차이검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독립집단 T-검증을 활용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1 비행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3〉은 비행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성별로는 남성 100%, 연령은 15세 이하(19.0%), 16세(28.2%), 17세(28.2%), 18세(24.6%)를 차지했다. 최종학력은 초등학교졸업 이하(2.4%), 중학교 중퇴(34.1%), 중학교 졸업(37.7%), 고등학교 중퇴(24.8%), 고등학교 졸업(1.0%)으로 나타났다. 공동거주자로 아버지와 거주(67.2%), 어머니와 거주

(53.4%), 형제, 자매와 거주(55.2%)로 나타났다.

표 3. 비행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3.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Juvenile Delinquents

변수	구분	빈도(N)	퍼센트(%)
성별	남성	84	100.0
	여성	0	0
	합계	84	100.0
연령	15세 이하	16	19.0
	16세	24	28.2
	17세	24	28.2
	18세 이상	20	24.6
	합계	84	100.0
최종학력	초등학교졸업 이하	2	2.4
	중학교중퇴	27	34.1
	중학교졸업	32	37.7
	고등학교중퇴	22	24.8
	고등학교졸업	1	1.0
	합계	84	100.0
공동거주자	아버지(N=84)	56	67.2
	어머니(N=84)	45	53.4
	형제, 자(N=84)	46	55.2
	할아버지(=84)	9	10.6
	할머니(N=84)	12	14.3
	기타(N=84)	11	13.1
	합계	84	100.0

1.2 일반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4〉는 일반 고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성별로는 남성 100%, 연령은 15세 이하부터 18세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17세(44.1%)와 16세(41.3%)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다. 공동거주자로는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 부모 거주가 90%이상을 차지했고, 형제, 자매 거주는 85.4%이며, 할아버지, 할머니 거주의 조손가정 형태는 아주 드물었다.

표 4. 일반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4.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Normal

변수	구분	빈도(N)	퍼센트(%)
성별	남성	213	100.0
	여성	0	0
연령	15세 이하	10	4.7
	16세	88	41.3
	17세	94	44.1
	18세	21	9.9
	합계	213	100.0
최종 학력	중3재학	88	41.3
	고1재학	92	43.2
	고2재학	33	15.5
공동 거주 자	아버지(N=213)	199	93.4
	어머니(N=213)	210	98.6
	형제, 자매(N=213)	182	85.4
	할아버지(N=213)	3	1.4
	할머니(N=213)	11	5.2
	기타(N=213)	3	1.4

Adolescents

소년원 입원횟수	성 비행	17	20.2
	약물비행	2	2.4
	기타	10	11.9
	무응답	6	7.2
소년원 출원 후 계획	1회	51	60.8
	2회	23	27.2
	3회 이상	4	4.8
	합계	84	100.0
	학교진학	32	36.8
Delinquents	취업	25	29.6
	기술배움	17	20.8
	기타	10	12.8
	합계	84	100.0

2.2 비행청소년의 소년원 입원전의 비행전력 특성 기술통계
비행청소년 소년원 입원전의 비행전력 특성을 <표 6>으로 살펴보면, 경찰훈방은 없다(38.1%), 3회 이상(29.8%), 1회, 2회 순으로 나타났으며, 검사 기소유에는 없다(52.4%), 1회(31.0%)의 결과를 보였다. 법원 보호처분은 없다(23.8%), 1회(28.6%), 2회(20.2%), 3회 이상(27.4%)이며, 소년교도소나 형사처벌은 없다(85.7%), 1회(9.5%)로 나타났다.

2. 비행청소년의 비행 통계표

2.1 비행청소년의 비행 특성

비행 특성을 <표 5>로 살펴보면 소속 교육과정은 특성화교육(45.8%)과 교과교육(44.6%)이 90%이상을 차지했으며, 직업훈련은 많지 않았다. 비행 명으로는 재산비행(50.0%), 폭력비행(21.4%), 성 비행(20.2%), 강력비행, 약물비행 순서로 나타났다. 소년원 입원횟수는 1회(60.8%), 2회(27.2%), 3회 이상(4.8%)로 나타났으며, 소년원 출원 후 계획은 학교진학(36.8%), 취업(29.6%), 기술배움(20.8%)으로 나타났다.

표 5. 비행청소년의 비행 특성
Table 5. Delinquency Characteristics of Juvenile

변수	구분	빈도(N)	퍼센트(%)
소속 교육과정	특성화교육	38	45.8
	직업훈련원	8	9.6
	교과교육	37	44.6
	합계	84	100.0
비행 명	재산비행(N=84)	42	50.0
	폭력비행	18	21.4
	강력비행	7	8.3

표 6. 비행청소년 표본의 소년원 입원전의 비행전력 특성표
Table 6. Delinquency History Characteristics of Sample of Juvenile Delinquents before Entering a Reformatory

변수	구분	빈도	열 %
경찰훈방	없다	32	38.1
	1회	17	20.2
	2회	10	11.9
	3회 이상	25	29.8
	합계	84	100.0
검사 기소유에	없다	44	52.4
	1회	26	31.0
	2회	10	11.9
	3회 이상	4	4.8
	합계	84	100.0
법원보호처분	없다	20	23.8
	1회	24	28.6
	2회	17	20.2
	3회 이상	23	27.4
	합계	84	100.0
소년교도소 형사처벌	없다	72	85.7
	1회	8	9.5
	2회 이상	4	4.8
합계	84	100.0	

3.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차이 분석(T검정)

3.1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총체적 자아존중감 차이 분석

총체적 자아존중감의 차이검증은 비행청소년(3.647)이 일반청소년(3.470)보다 높게 나타나서($t=2.227,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22]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청소년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두 변수 사이의 매개체로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24][26]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3.2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사회적 자아존중감 차이 분석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차이검증에서는 비행청소년(3.439)과 일반청소년(3.365)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교우관계와 가장 높은 정적상관이 있는 또래와의 관계형성에서는 두 집단 간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3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가정적 자아존중감 차이 분석

가정적 자아존중감의 차이검증에서는 비행청소년(3.329)과 일반청소년(3.453)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의 하위 영역 중,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유일하게 낮은 결과를 나타낸 영역으로 부모와의 공동거주 비율이 가정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에서 형성된 자아존중감이 비행 초기단계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37][38]의 연구결과와 일부 상통한다.

3.4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학교 자아존중감 차이분석

학교 자아존중감의 차이검증에서는 비행청소년(2.744)이 일반청소년(2.599)보다 높게 나타나서($t=2.034,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일반청소년들이 성적으로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신감 저하현상과, 가치관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반면, 비행청소년들은 자신의 적성을 살려 취업과 기술습득으로 다양한 진로 방향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성적에 얽매이지 않아,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자아존중감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보여진다.

표 7.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평균차이 비교분석
Table 7. Comparison Analysis of Mean Difference between Juvenile Delinquents and Normal

구분	집단	평균	표준 편차	합계	T값	유의 확률
자아 존중감	비행청소년	3.273	0.357	213	1.025	0.306
	일반청소년	3.218	0.439	84		
총체적 자아존 중감	비행청소년	3.647	0.640	213	2.227	0.018*
	일반청소년	3.470	0.547	84		
사회적 자아존 중감	비행청소년	3.439	0.521	213	0.862	0.389
	일반청소년	3.365	0.715	84		
가정적 자아존 중감	비행청소년	3.329	0.726	213	-1.431	0.154
	일반청소년	3.453	0.653	84		
학교 자아존 중감	비행청소년	2.744	0.538	213	2.034	0.050*
	일반청소년	2.599	0.582	84		

Adolescents' Self-esteem

* $p < .05$, ** $p < .01$, *** $p < .001$

4.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사회성 차이분석 (T검정)

4.1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지도성 차이분석

집단을 이끌어 가고 생산성 있게 일을 조직하고 결정해 나가는 능력과 의지를 의미하고 있는 지도성에서는 비행청소년(22.05)이 일반청소년(20.54)보다 높게 나타나서($t=3.028,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비행청소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주도하고 집단생활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타인을 수용하는 개방된 마음이 좀 더 발달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4.2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사교성 차이분석

여러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며 참여적이고 언제나 희망에 차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호감을 줄 수 있는 사교성에서는 비행청소년(6.68)과 일반청소년(6.19)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비행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사회적 행동에서도 결함이 나타나, 비행, 약물복용 및 우울증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와 직결된다는 연구 [19][40]와는 일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두 집단 간의 대인적응성을 나타내는 사교성에는 큰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주성 차이분석

무슨 일을 하든지 주체성을 가지고 추진하며, 스스로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결정하는 감정이나 의지를 의미하는 자주성에서는 일반청소년(6.65)이 비행청소년(6.18) 보다 높게 나타나서($t=-2.116,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행동의 결과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스스로 어떤 일을 하거나 통제, 절제하는 면에서 비행청소년이 약간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4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신뢰성 차이분석

일관성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고 타인에게 믿음을 주는 감정이나 의지를 의미하는 신뢰성에서는 일반청소년(6.92)이 비행청소년(6.42)보다 높게 나타나서($t=-2.334,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청소년의 타인으로부터의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원인이 되어 비행이나 재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8.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사회성 평균차이비교분석
Table 8. Comparison Analysis of Mean Difference between Juvenile Delinquents and Normal Adolescents

구분	집단	평균	표준 편차	합계	T값	유의 확률
사회성	비행청소년	3.442	0.50	84	0.976	0.330
	일반청소년	3.380	0.4915	213		
지도성	비행청소년	22.05	4.092	84	3.028	0.003**
	일반청소년	20.54	3.789	213		
사교성	비행청소년	6.68	2.174	84	1.888	.060
	일반청소년	6.19	1.924	213		
자주성	비행청소년	6.18	1.805	84	-2.116	.036*
	일반청소년	6.65	1.558	213		
신뢰성	비행청소년	6.42	1.805	84	-2.334	.021*
	일반청소년	6.92	1.284	213		

Sociality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대한 영역별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교정단계에서 적절한 개입과 대처를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사회학 특성 중 공동거주자로 일반청소년은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 부모와 거주하는 경우가 90%이상을 차지했으나, 비행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와 거주(67.2%), 어머니와 거주(53.4%)가 일반청소년보다 훨씬 낮은 통계를 나타냈다.

둘째, 비행청소년의 소속교육과정은 특성화교육과 교과교육이 90%이상을 차지했으며, 비행 명으로는 재산비행(50.0%), 폭력비행, 성 비행 순서로 나타났다. 소년원 출원 후 계획은 취업과 기술 배움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었다.

셋째, 소년원 입원 전의 비행전력 특성은 경찰훈방은 없다(38.1%), 3회 이상(29.8%), 검사 기소유예는 없다(52.4%), 법원 보호처분은 1회(28.6%), 3회 이상(27.4%), 소년교도소나 형사처벌은 없다(85.7%)로 나타났다.

넷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집단 간 자아존중감 차이분석을 보면, 총체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에서 모두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고, 가정적 자아존중감 영역에서만 일반청소년이 높게 나타나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다섯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집단 간 사회성 차이 분석을 보면, 지도성에서는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높았고, 자주성과 신뢰성에서는 일반청소년이 높게 나타나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교정정책적 함의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정적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비행청소년의 경우, 편부모와 거주하는 결손 가정 형태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비행에 쉽게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갈등이 청소년 우울과 비행에 중요한 변수라고 밝힌 선행연구들 이애령[37], 안상미[38]의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요컨대 아무리 교정교화를 해도 가정환경과 부모 의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비행청소년의 교정교육도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

둘째, 소년원 출원 후에는 안정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전국 소년원에 취업 및 사후 정착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정책적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재산비행이 가장 높은 통계를 나타낸 것은 법무부의 통계조사(2009)와도 일

치한다. 이는 유희비 마련 등에 의한 절도 등의 범죄형이 많은 것으로 보아, 비행청소년들이 소년원 출원 후,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취업 중심의 교육과정 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년 범에 대한 기소유예제도 활용과 선도·보호처분 강화를 비행초기 단계부터 실시하여, 낙인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일단 청소년들은 비행을 저지르게 되면 가족, 학교, 친구 등으로부터 낙인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비행청소년들을 재 비행이나, 나아가 성인 범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비행초기 단계의 우범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보호가 중요하다.

넷째, 각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영역별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대상별 맞춤형 설계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하다.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에서는 비행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약물중독, 학업실패, 비행행동 등의 일탈행위를 저지를 소지가 높다[39]고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전반적으로 일반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나서 자아존중감이 비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익중[24], 이경남[25]의 연구결과와 일부 맥락을 같이 한다.

다섯째, 비행청소년의 사회성의 하위 영역인 자주성과 신뢰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체험활동 중심의 공감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교육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성의 하위 영역인 자주성과 신뢰성 부분에서는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낮게 나타나, 이러한 원인이 비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사회성이 결여된 청소년은 비행이나 일탈로 이어지기 쉽고, 성인기까지 문제행동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 정명실[11]의 결과와 상통한다. 따라서 재범 위험성이 큰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회성의 하위 영역에 따른 맞춤형 설계를 통한 사회성 함양 고취 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의 모든 하위 영역을 다루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을 활용한 비교 검토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1] Rosenberg, F.R., and M. Rosenberg, "Self-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78.
- [2] Fitts, W. & Hammer, W., "The self-concept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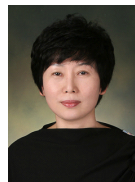
Delinquency," *Nashville : Mental Health Center(Research Monograph No. 1)*. 1969.

- [3] Hewitt, J., "Social Stratification and Deviant Behavior," New York : Random House. 1970.
- [4] Mun Ae-sun, "A Study on Sociality and Self-esteem of Structural Broken Family Children," a master's thesis, Tamna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06.
- [5] Marx, R. W., & P.H. Winnie, "Construct interpretations of three self-concept inventories," *American Education Research Journal*, 15, pp. 99-109, 1978.
- [6] Harter, S.,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pp. 87-97, 1982.
- [7] Shavelson, R.J., & R. Bolus, "Self-concept: The interplay of theory and method,"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 pp. 3-17, 1982.
- [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 Juvenile White Paper,"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ww.mogef.go.kr, pp. 336-383, 2012.
- [9] This study considers as juvenile delinquents teenagers who is sentenced to the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of no. 8, 9 and 10, under the Juvenile Act. Protective disposition is to be sentenced, as a result of trial, when judged government should protect the juvenile positively for the improvement of his environment. Protective disposition is divided from no. 1 to no. 10: sending juvenile offender to a probation office goes from no. 2 to no. 5: sending him to a reformatory falls from no. 8 to no. 10. Unlike the criminal punishment, protective disposition doesn't leave criminal records. The kinds of protective disposition are: no. 1(Protection by a guardian or trust of care and custody to a person possible to protect the juvenile on behalf of a guardian); no.2(order to attend lectures of 100 hours); no.3(social service order of 200 hours); no.4(short-term probation for a year); no. 5 (long-term

- probation for 2 years); no. 6(trust of care and custody to a child welfare institution or other juvenile institutions for 6 months, under Child Welfare Act); no. 7(trust to a hospital, a sanatorium or a juvenile medical institution for 6months, under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 Act); no. 8(sending to a reformatory for a month); no. 9(short-term sending to a reformatory for 6months); and no. 10(long-term sending to a reformatory for 2 years)(Ministry of Justice, 2009).
- [10] Jo Han-il, "A Study on the Effect of Juvenile Humanity Education Program-Relations with Self-esteem·Self-expression·Sociality," a master'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06.
- [11] Jeong Myeong-sil·Kim Jeong-suk·Wee Hwi, "A Workbook on Human Relations and Communi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ess, 2011.
- [12] Kang Seo-young, "Influence of Child Self-respect on the development of sociality," Ky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Thesis for Master's degree, pp. 15-20, 2010.
- [13] Kim Jun-ho, "Theory of Juvenile Delinquency," second edition, Chongmok Publishing Company 30, 2009.
- [14] A juvenile offender (between 14-year-olds and 19-year-olds) is a person who offended against juvenile criminal law and is criminally liable.
- [15] A juvenile in contact with crime (between 10-year-olds and 14-year-olds) is a person who offended against criminal law, but because it is a behavior of a criminal minor, he is not criminally liable but becomes a subject of protective disposition.
- [16] A juvenile with criminal bent (between 10-year-olds and 19-year-olds) is a person who has proclivities not to obey the right supervision of a guardian, deviates from home without just reason, or has criminal proclivities, or a behavior which is recognized as not a crime itself but there is a potential to commit a crime, because he associates with an immoral person or has a proclivity to harm other's virtue.
- [17] Baek Hye-jeong·Hwang Hye-jeong, "A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s-related Variables and Self-related Variables o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oblematic Behaviors," Korean Psychologic Development Study, 19(3), pp. 1-27, 2006.
- [18] Kim Gyeong-sik·Lee Hyeon-cheol, "The Impact Factors Related to Juvenile Delinquency," Educational Sociology Studies, 17(2), pp. 1-22, 2007.
- [19] Choi Kwang-sik, "The Effect of an Anger-Controlling Program of Reducing Anger and Aggression of Juvenile Delinquents," Majored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2000.
- [20] Kim Song-ja, "The Relation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Sociality and School Adoption," Kei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esis for Master's degree, 2005.
- [21] Kaplan, "self-attitudes and Deviant Behavior," new directions for theory and research, Youth Society. 1982.
- [22] Kim Byeong-geun, "A Study on Decision Factors of Self-esteem," a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1988.
- [23] Im Jin-seop·Kim Myeong-il·Han Eun-yeong, "A Probe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ggression Levels of Juvenile Offenders - Using the Heckman Selection Mode 1," National Youth Studies, 20(4), pp. 29-69, 2009.
- [24] Jeong Ik-jung,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Juvenile Delinquency," Social Welfare Studies, 36, pp. 33-159, 2006.
- [25] Lee Gyeong-nim, "The Effects of Attachment, Self-Esteem and Impulse Control on Adolescent Delinquenc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8), pp. 191-206, 2002.

- [26] Jin Hye-min·Park Byeong-seon·Bae Seong-woo, "The impact of informal Labeling, Self-esteem, Depression, and Aggression on Juvenile Delinquency-Focusing on Path Analysis," *Youth Welfare Studies*, 13(2), pp. 121-148, 2011.
- [27] Coopersmith, S.,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H. Freeman*. 1967.
- [28] Rosenberg, M.,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1979.
- [29] Piers, E. V., "Revised manual for the Piers-Harris children's self-concept scale," *Los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1985.
- [30] Choi Bo-ga·Jeon Gwi-yeon,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elf-Esteem Scale," (I),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2), pp. 42-46, 1993.
- [31] Coopersmith, S., "self-esteem inventories, Palo Alto," CA: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81.
- [32] Coopersmith, stated that self-esteem was measured by sum of points of subordinate measurements such as 'general ego, social ego, home-parents ego, academic ego.' 1967.
- [33] Harter, S.,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4thed.)*, NewYork : Wiley, pp. 275-385, 1983.
- [34] Pope, A.W., McChale S.M., & Craighead W.E., "self-esteem enhancement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Pergamon Press*. 1988.
- [35] Lee Jong-seung, "A Handbook of Middle School Recent Personality Emotion Diagnostic Inventory," *Korean Testing Center*, 1999.
- [36] Seong Mi-ok,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the Effect of Praise Program for Improve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a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3.
- [37] Lee Ae-ryeong,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f Juvenile Delinquency," a doctoral thesis, Chungbuk National Graduate School, 2004.
- [38] An Sang-mi, "Family's Cohesiveness and Adaptability,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Family Conflict and Juvenile's Depression and Delinquency," a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6.
- [39] Choi Su-yeon, "The Effects of Seat Disposition through Sociometric Method on the Change of School Life Attitude and Peer Relations," a master's thesis, Gwang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08.
- [40] Merten, D. E., Visibility and vulnerability: Responses to rejection by nonaggressive junior high school boy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6, 5-26, pp. 1996.

저 자 소 개



이 덕 남

2012: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현 재: 조선이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가족복지,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

Email : waseda88@hanmail.net